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어 연구

-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Color Terms for Italian Learners

- Focusing on the “Blue” Series -

이 상 숙
(Lee Sang Suk)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2-3, 367-392.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blue” series of color terms in Korean and Italian with the aim of improving understanding and the appropriate use of the semantic categories and usage patterns of Korean “blue” color terms among Italian learners of Korean. Korean has a highly developed system of color terms. Prefixes and suffixes, compounding, and consonant and vowel alternations are used to express not only subtle differences in shades of color but also nuanced distinctions in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color. Italian possesses a similarly sophisticated system of color terms. Additionally, because the Italian cultural background emphasizes the value of aesthetic sensibility, native speakers tend to distinguish and describe colors with great clarity and precision. However, in the contex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talian learners often experience confus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use of the “blue” series of color term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blue” series in both languages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tend to confuse Italian learners. The findings reve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regarding the basic color terms of the “blue” series and regarding the developmental order of those basic terms and their usage patterns. (Ca’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주제어: 색채어(Color Term), 기본 색채어(Basic Color Terms), 파란색 계열(Blue Series), 한국어(Korean Language), 이탈리아어(Italian Language),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1. 서론

한국어는 색채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 접두사와 접미사의 결합, 색채어의 합성, 자음·모음의 교체 등을 통해 미세한 색의 차이는 물론 색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의 차이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 또한 한국어 못지않게 정교한 색채어 체계를 갖춘 언어로, 미적 감각이 중시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탈리아어 모국어 화자들은 색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종종 교사가 예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수업 시간에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에게 ‘얼굴이 ___ 처럼 빨개요’라는 표현을 제시해 주고 빨간색과 연관 있는 사물을 넣어 보라고 요청했을 때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은 교사가 기대한 ‘사과’를 넣지 못했다. 이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사과’를 제시해 주었을 때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은 크게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게는 ‘사과’가 빨간색을 대표하는 사물로 인식되는 반면, 이탈리아인 화자들에게는 ‘사과’는 주로 노란색으로 인식되며, 오히려 ‘토마토’가 빨간색을 대표하는 사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요’라는 표현은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않다.¹⁾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색채어가 단순히 색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현희(2011:194-19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빛과 물체와의 관계, 인간의 인지,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색채어의 의미 및 사용 양상이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색채어 가운데 가장 큰 혼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파란색’ 계열이다. 수업 시간에 맑은 하늘을 ‘파란 하늘’로 제시했을 때, 학습자들은 왜 ‘하늘색’으로 표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한 ‘파란 하늘’ 대신 ‘푸른 하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1) 이탈리아어에서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요’라는 표현은 ‘La faccia è diventata rossa come un pomodoro(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갱게 변했다)’이다.

점에서 ‘파랳다’와 ‘푸르다’를 동일한 색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신호등의 출발 신호가 초록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화자들이 이를 ‘파란불’이라 부르는 현상 역시, 색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려는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색채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중 다수가 대조 언어학적 연구로 중국어권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²⁾ 유럽어와 관련된 연구로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색채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³⁾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색채어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색채어를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중심으로, 두 언어의 색채어 특징과 의미 그리고 사용 양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색채어 특징

2.1. 한국어 색채어

Berlin & Kay(1969)는 언어에는 의미적 보편적 범주가 있다고 보고 98개 언어를 분석하여 색채 보편성을 밝혀냈다. 색채어 중에서 고유어이면서

2)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RISS)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어 색채어 관련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총 173편으로 이 중에서 대조 언어학 관련 논문은 103편이다. 대조 언어학 관련 논문 총 103편 중 중국어와 비교 연구한 논문은 63편으로 60%를 차지한다. (2025년 7월 기준)

3) 프랑스어 색채어에 관한 연구는 총 4편으로 관용 표현, 색채 언어, 색채어 어휘 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고, 스페인어 색채어에 관한 연구는 총 1편으로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가 있다.(2025년 9월 기준)

단일어이고, 적용 범위가 넓고, 다른 색채어에 포함되지 않는 색채어를 기본 색채어(Basic Color Terms, BCTs)라고 명명하고 언어 보편적인 색채 발달 순서를 제시하였다.

모든 언어는 ‘흰색’과 ‘검정색’을 가지고 있고, 만약 한 언어가 3개의 색채어를 가지고 있다면 ‘빨간색’이 포함되고, 4개의 색채어를 가지고 있다면 ‘녹색’이나 ‘노란색’이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 한 언어가 5개의 색채어를 가지고 있다면 ‘녹색’과 ‘노란색’이 모두 포함되고, 그 다음으로 ‘파란색, 갈색, 보라색, 분홍색, 주황색, 회색’ 순서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표 1> Berlin & Kay(1969)의 색채어 발달 순서

흰색/검정색 → 빨간색 → 녹색/노란색 → 파란색 → 갈색 → 보라색 → 분홍색 → 주황색 → 회색

Berlin & Kay(1969:40)는 한국어 기본색에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어 총 11개의 기본 색채어를 제시하였다. 고유어인 ‘까맣다, 하얗다, 빨갳다, 노랗다, 파랗다’와 한자어인 ‘분홍색, 적색, 갈색, 밤색, 녹색, 청색, 자색, 회색’이 기본 색채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현희(2011:200)가 지적했듯이, Berlin & Kay(1969:40)가 제시한 한국어 기본색에는 형용사형과 명사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적색’을 ‘주황색’으로 잘못 번역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 기본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⁴⁾

한국어의 전통적인 기본색은 고유어인 ‘희다, 검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5색이다.⁵⁾ 김영우(1998)에서는 언어 보편적으로 색채어는 인간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환경을 표현하는 말들과 관련이

4) 이현희(2011:200)에서는 Berlin & Kay(1969:40)가 한국어 기본색을 ‘kkamahta(black), hayahta(white), ppalkahta(red), nolahta(yellow), palahta(green), pwunhongsayk(pink), tungsayk(orange), kalsayk(brown), pamsayk(chestnut brown), noksayk(green), changsayk(blue), casayk(purple), hoysayk(grey)’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5) 정하운(2021:26)은 전통적으로 동양의 기본색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색이며, 이러한 5색 개념은 ‘다섯’이라는 수가 중국의 음양오행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있다고 보았는데, 주변 사물의 색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은 형용사이다. 구본관(2008:266)에서도 색채어는 대체로 친숙한 사물 명사에서 형용사로 발달하고 이 형용사에서 다시 추상적인 색채 명사나 부사로 발달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형용사 색채어가 다른 형태들보다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기본 색채어는 고유어 형용사형인 ‘희다, 검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이다.

한국어의 전통적인 기본 5색은 대부분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푸르다’는 ‘풀(草)’에서 온 말로 홍선희(1982:11-13)는 ‘푸르다’를 초목의 색에서 가장 큰 자극을 받아 개념화된 것으로 보았다. ‘희다’는 ‘해(日)’에서 온 말로 이건환(2007:245)은 ‘해’는 자연 대상인 ‘태양’을 가리키고 태양의 밝은 속성이 한자어 ‘白日’로 나타나며, ‘白日’은 대낮을 표현하는 뜻으로 ‘희의 빛깔은 희다’라고 사용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희다’라는 말로 발달하여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붉다’는 ‘불(火)’에서 온 말로 이건환(2007:246)에서는 ‘붉다’의 어간인 ‘붉’은 체험적 동기인 ‘불’과 어원상의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검다’와 ‘누르다’는 어원이 불분명한데 성인출(1997)에서는 ‘검다’를 ‘하늘(天)’에서, ‘누르다’를 ‘땅(地)’에서 온 것으로 보았고, 이건환(2007:245)에서는 ‘검다’를 해와 달이 부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각한 데서, ‘누르다’는 ‘뚫’에서 왔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홍선희(1982:12)에서는 ‘누르다’는 땅의 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땅을 지칭하는 말인 ‘누리’에서 개념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는 다양한 색 또는 미세한 색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색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색채어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언어이다.

동일한 색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 색채어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상황에 따라 동일한 색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색을 두 개 이상의 어휘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고유어 색채어는 원래부터 한국어에 있던 색채어로 ‘희다, 검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하얗다, 노랗다, 까맣다, 빨갳다, 파랗다, 푸르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자어 색채어는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또는 한자어에 색(色)이 결합된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백색(白色), 흑색(黑色), 녹색(綠色), 회색(灰色)’ 등이 있다. 외래어 색채어는 대부분 영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아이보리(ivory), 핑크(pink), 베이지(beige), 오렌지(orange)’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외래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도 많다.⁶⁾

두 번째 이유는, 한국어 색채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등 다양한 품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의 ‘bianco(white)’는 한국어로 명사형인 ‘흰색, 하얀색, 백색, 하얗’, 형용사형인 ‘하얗다, 희다’, 형용사 관형형인 ‘하얀, 흰’, 부사형인 ‘하얗게, 희게’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한국어 색채어의 또 다른 특징은 파생 접사의 결합, 두 색채어의 합성, 모음 교체 등을 통해 미세한 색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 ㄱ. 준이는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 ㄴ. 지애는 새파란 운동화를 신고 있다.
- ㄷ. 연기 사이로 파스름한 불빛이 보였다.
- ㄹ. 그 사람 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흘렀다.

(1ㄱ)과 (1ㄴ)은 형용사 ‘파랗다/퍼렇다’에 파생 접두사 ‘새-’와 ‘시-’가 결합한 예로 파생 접두사 ‘새-’와 ‘시-’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접두사 ‘새-’는 ‘파랗다’처럼 어두움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일부 색채 형용사와 결합하고, 접두사 ‘시-’는 ‘퍼렇다’와 같이 어두움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ㅓ, ㅕ’인 일부 색채 형용사와 결합한다. 이와 같이 색채어를 파생시키는 파생 접두사로는 ‘새-, 시-, 연-, 진-’ 등이 있다.

반면 (1ㄷ)과 같이 접미사 ‘-스름하다’는 일부 색채 형용사 뒤에 붙어

6) ‘화이트, 블랙, 블루’ 등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빛깔이 열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색채어 ‘파랳다’에 접미사 ‘-스름하다’가 결합하면 ‘파스름하다’가 되어 열린 파란색을 나타낸다. 색채 접미사로는 ‘-스름하다, -스레하다, -끼리하다’ 등이 있다. 이처럼 색채어 형용사에 다양한 파생 접사가 결합해 미세한 색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모음 교체로도 색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1ㄱ)과 (1ㄴ)의 ‘파랳다’와 ‘퍼렇다’는 모두 파란색을 나타내지만 ‘퍼렇다’가 ‘파랳다’보다 더 어두운 파란색을 나타낸다. 한국어는 모음 종류에 따라 색의 밝기가 달라지는데 양성 모음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반면 음성 모음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또한 한국어 색채어는 두 색채어의 합성을 통해 색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1ㄷ)의 ‘검붉다’는 ‘검다’와 ‘붉다’가 합성된 색채어로 검은빛을 띤 붉은색을 나타내고, ‘희누렇다’는 ‘희다’와 ‘누렇다’의 결합으로 흰빛을 조금 띤 탁한 누런색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어는 파생 접사와의 결합, 색채어 간 합성, 모음 교체를 통해 색의 차이를 풍부하고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을 지닌다.

2.2. 이탈리아어 색채어

이탈리아어 기본색(BCTs)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12개 사이이다. 조문환(2013:281)에서는 기본 색채어 10개 ‘nero(검정색), bianco(흰색), rosso(빨간색), giallo(노란색), verde(녹색), blu(파란색), porpora(자주색), grigio(회색), rosa(분홍색), azzurro(하늘색)’와 비기본 색채어 2개 ‘arancione(주황색), viola(보라색)’를 제시하였는데, Berlin & Kay(1969)의 기본 색채어에 없는 ‘azzurro(하늘색)’가 포함되어 있고, ‘marrone(갈색)’ 대신 ‘porpora(자주색)’가 기본 색채어에 포함되었다.

Paggetti 외(2015:8)에서는 기본 색채어를 12개 ‘bianco(흰색), rosso(빨간색), giallo(노란색), nero(검정색), verde(녹색), marrone(갈색), blu(파란색), rosa(분홍색), arancione(주황색), azzurro(하늘색), grigio(회색), viola(보라

색)’로 제시하였는데, 역시 Berlin & Kay(1969)의 기본 색채어에 없는 ‘azzurro(하늘색)’가 포함되어 있다.

Grossmann & D’Achille(2019:63)에서는 기본 색채어를 다음과 같이 9개 ‘bianco(흰색), nero(검정색), rosso(빨간색), verde(녹색), giallo(노란색), azzurro(하늘색)/blu(파란색), marrone(갈색), grigio(회색), viola(보라색)’로 제시하였는데, ‘rosa(분홍색)’와 ‘arancione(주황색)’는 기본색으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 색채어에서 제외하였다.

이탈리아어 기본 색채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azzurro(하늘색)’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Berlin & Kay(1969)와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에는 ‘하늘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이탈리아어 기본 색채어에는 ‘azzurro’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탈리아인들이 ‘azzurro’를 하나의 독립적인 색채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⁷⁾

Berlin & Kay(1969)가 제시한 기본 색채어(BCTs)는 일반적으로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채어를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언어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색채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마다 기본 색채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어 역시 한국어 못지않게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이다. 이탈리아어 색채어는 대부분 명사형과 형용사형으로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사로 파생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Grossmann & D’Achille(2019)에 따르면 이탈리아어 색채어는 기본 색채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생, 합성, 전환 방식에 의해 다양한 색채어를 만들어 낸다.

- (2) ㄱ. Il muro è giallognolo.(벽이 누르스름하다)
 ㄴ. Quel vestito è rossissimo.(저 옷은 새빨갳다)

7) Del Viva et al.(2023)에서는 토스카나 지역 성인 화자 1,172명을 대상으로 83가지 색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명명하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화자들이 ‘celeste, azzurro, blu’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세 가지 파랑색 계열 색채어가 토스카나 지역 화자들에게 기본 색채어(BCTs)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탈리아 화자들에게 ‘azzurro’가 가지는 색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 ㄷ. *Indossa una giacca olivastro.*
(그는 올리브색/탁한 녹색색의 자켓을 입고 있다)
- ㄹ. *Era arrossito per l'imbarazzo.*
(그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 ㅁ. *I suoi occhi sono color acquamarina.*
(그의 눈은 아쿠아마린색이다)
- ㅂ. *La bandiera è bianco-nera.*(깃발은 흑백색이다)
- ㅅ. *Ho comprato una borsa rosso mattone.*(나는 벽돌색 가방을 샀다)

(2ㄱ)-(2ㄹ)은 파생 접미사가 결합돼 새로운 색채 형용사가 만들어진 예이다.⁸⁾ (2ㄱ)은 형용사 ‘giallo(노랗다)’에 접미사 ‘-gnolo’가 결합되었는데 접미사 ‘-gnolo/-ognolo’는 일반적으로 색채 형용사와 결합해 파생 형용사를 만들고, 색이 약하거나 탁함을 나타낸다. (2ㄴ)은 형용사 ‘rosso(빨강다)’에 접미사 ‘-issimo’가 결합된 예로 접미사 ‘-issimo’는 강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며 색채어와 결합할 경우 밝기나 채도가 가장 밝음을 나타낸다. (2ㄷ)은 명사 ‘oliva(올리브)’에 접미사 ‘-astro/-astra’가 결합되어 새로운 색채 형용사를 파생한 예로, 이러한 색채어 파생법은 명사가 가진 전형적인 색과 비슷한 색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접미사 ‘-astro/-astra’는 색이 흐리거나 탁함을 나타낸다. (2ㄹ)의 ‘arrossito(빨개졌다)’는 동사 ‘arrossire’에 접미사 ‘-ito’가 결합되어 얼굴이 빨갱게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는 특이하게 색채 형용사에 접사가 결합된 파생 동사가 다시 접미사와 결합한 것으로 주로 색채 변화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2ㅁ)은 특정 사물 명사가 독립적인 색이름으로 사용되는 전환의 예이다. ‘acquamarina’는 연한 물빛색을 띤 보석인데 이 명사가 가진 특정 색이 하나의 색채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2ㅂ)과 (2ㅅ)은 두 색채어가 합성되어 새로운 색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2ㅂ)은 형용사-형용사가 합성된 예로 형용사인 ‘희다’와 ‘검다’가 합성되어 ‘흑백색’을 나타내는 색채어가 되었고, (2ㅅ)은 형용사 ‘rosso(붉다)’와 명사 ‘mattone(벽돌)’가 결합된 것으로

8) 본 연구에 사용된 이탈리아어 예문은 모두 OpenAI의 언어 모델(ChatGPT, GPT-4)을 사용해 찾아내거나 생성된 것으로 이탈리아 모국어 화자가 검토·수정하였다.

벽돌이 가진 붉은 색이 하나의 독립적인 색으로 발달된 경우이다. 이처럼 이탈리아어도 한국어와 비슷하게 파생, 합성, 전환의 방식을 사용해 세밀하고 다양하게 색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는 모두 색채어가 발달된 언어로 접사 파생, 색채어 합성을 통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언어는 기본 색채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어 기본 색채어에는 이탈리아어에 없는 ‘푸르다’가 포함되어 있고, 이탈리아어 기본 색채어에는 ‘azzurro(하늘색)’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색은 모두 ‘파란색’ 계열에 포함되는 색채어들로 Berlin & Kay(1969)가 제시한 언어 보편적인 색채 발달 순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색채어들이다. 다음 장에서 ‘파란색’ 계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 ‘파란색’ 계열의 색채어

3.1. 한국어 ‘파란색’ 계열

한국어 색채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 색채어 ‘푸르다’이다. ‘푸르다’는 파란색을 나타내는 색채어인데 한국어에는 파란색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색채어 ‘파랗다’도 있다.⁹⁾

‘푸르다’는 전통적인 기본 색채어로 형용사 ‘푸르다’에서 ‘파랗다’가 파생되었고, ‘파랗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명사 ‘파랑’이 파생되었다. 이후 ‘파랗다’가 파란색(blue)을 나타내는 독립된 색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후 ‘푸르다’에서 ‘파란색(blue)’과 ‘녹색(green)’이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9)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형을 기본 형태로 보도록 한다.

10) 양성희(2021)에서는 ‘푸른색, 파란색, 초록색’ 순의 색 분화 과정이 Berlin & Kay(1969)가 제시한 색채 언어의 보편적 진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 오방색에서 ‘푸르다’에 해당하는 ‘청’색은 자연을 나타내는 초록색, 청록색, 파란색을 포함하는

색 분화가 덜 발달된 시기에는 이진환(2007:248)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색, 녹색, 남색이 미분화 상태를 보여 ‘푸르다’가 이 색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색채어로 사용되다가 이후 사회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화자들의 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색 구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푸르다’가 포괄하던 색들이 점차 세분화되었다. ‘파란색’ 계열 색채어에는 ‘푸르다(푸른색), 파랗다(파란색), 하늘색, 청색, 남색, 청록색, 진파랑, 연파랑’ 등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파란색’ 계열 색채어가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째, ‘푸르다’가 포괄하던 색들이 세분화된 이후에도 ‘푸르다’는 여전히 기본 색채어로 남아 있어 ‘푸르다’와 ‘파랗다’ 사이의 의미적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구분관(2008:271)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어에서 ‘푸르다’와 ‘파랗다’는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이나 ‘바다’의 색을 표현할 때 ‘푸른 하늘’과 ‘파란 하늘’, ‘푸른 바다’와 ‘파란 바다’가 모두 가능한데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두 색채어 사용에 혼란을 준다.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푸르다’와 ‘파랗다’의 색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두 색채어를 동일한 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색채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둘째, 한국인 화자들은 실제 사용에서 ‘파란색’이 아닌 경우에도 ‘파랗다’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맑은 하늘을 지칭할 때 ‘하늘색’ 대신 ‘파란색’ 또는 ‘푸른색’을 사용하는 경우와 신호등의 출발 신호 색이 ‘초록색’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상 역시 색을 구분하려는 인식이 강한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김선민(2014:759)에서는 ‘푸르다’와 ‘파랗다’의 실제 사용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연구 교육용 현대 국어 말뭉치』¹¹⁾를 분석하였

광범위한 자연색이었는데 자연을 광범위하게 나타내던 푸른색(푸른색)에서 노란색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푸른색은 점점 파란색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 과정은 Berlin & Kay(1969)가 말한 green-yellow-blue의 분화 순서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는데 그 결과 ‘푸른/푸르다/푸르게’는 총 648회, ‘파란/파랗다/파랗게’는 총 207회로 ‘푸르다’가 ‘파랗다’보다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았다.¹²⁾ 이러한 결과는 ‘푸르다’가 여전히 한국어 색채어에서 중요한 색채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푸르다’와 ‘파랗다’의 사용 빈도 차이는 두 색채어의 용법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색채어의 의미상의 차이를 보기 위해 우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3) ‘푸르다’의 사전적 정의

- ㄱ.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
- ㄴ. 곡식이나 열매 따위가 아직 덜 익은 상태에 있다.
- ㄷ. 세력이 당당하다.
- ㄹ. (비유적으로) 젊음과 생기가 왕성하다.
- ㅁ. (비유적으로) 희망이나 포부 따위가 크고 아름답다.
- ㅂ. 공기 따위가 맑고 신선하다.
- ㅅ. 서늘한 느낌이 있다.

(4) ‘파랗다’의 사전적 정의

- ㄱ.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싹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 ㄴ. 춥거나 겁에 질려 얼굴이나 입술 따위가 푸르게하다
- ㄷ. (비유적으로) 언짢거나 성이 나서 냉랭하거나 사나운 기색이 있다.

두 색채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사물의 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푸르다’가 ‘파랗다’보다 비유적·상징적 의미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국어 말뭉치』로 1000만 어절 이상의 문어 자료(신문, 잡지, 소설, 논문, 교과서 등)를 포함되어 있다.

12) 김선민(2014:759)의 분석 결과를 보면 ‘푸른, 푸르다, 푸르게’ 형태 중에서 ‘푸른 N’이 87.7%, ‘파란 N’이 79.2%로 여러 형태 중에서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일차적으로 하늘과 바다의 색을 지칭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두 색채어가 동일한 색채어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 (5) 가.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완전 파란 하늘이야 / ??푸른 하늘이야.
 나. ??파란 하늘 / 푸른 하늘은 고요히 내려 갈리던 그 보드러운 눈결
 (김소월의 시 ‘공원의 밤’중에서)
 다. 눈 앞에 펼쳐진 푸른 들판 / ??파란 들판이 아름답다.
 라. 가장 푸른 눈(토니 모리슨의 ‘The Bluest Eye’)

(5가)과 (5나)은 맑은 하늘을 지칭하는 예로, (5가)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맑은 하늘을 나타낼 때 ‘파란 하늘’은 자연스럽지만 ‘푸른 하늘’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반대로 (5나)처럼 문학 작품에서는 ‘푸르다’가 ‘파랗다’보다 자연스러운데 ‘푸르다’ 대신 ‘파랗다’를 사용할 경우 시적 깊이나 상징성이 줄어드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5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5르)은 Toni Morrison 소설의 제목인 ‘The Bluest Ey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작품 전반에서 ‘blue eye’를 ‘파란 눈’이 아닌 ‘푸른 눈’으로 번역하고 있다.¹³⁾ 김선민(2014:762)에서 ‘푸르다’는 그 의미 자체가 비유적, 상징적인 경우가 많아, 시나 노랫말 등에서 자주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파랗다’는 비유나 상징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였다.

이처럼 ‘파랗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단순한 색을 나타낼 때 사용이 자연스러운 반면 ‘푸르다’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러한 까닭에 문학 작품 제목이나 작품에 ‘푸르다’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5다)은 자연의 색을 표현한 예로, ‘푸른 들판’은 자연스럽지만 ‘파란 들판’은 어색하다. 이러한 현상은 ‘들판’뿐 아니라 ‘나무’, ‘산’과 같은 자연

13) 이선민(2016)에서는 토니모리슨의 ‘the blue eye’ 작품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분석하였는데, 푸른색의 이미지는 ‘백인의 눈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SaintMaria’의 숭고함과 고결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파랗다’가 구체적인 파란색을 나타내지만, ‘푸르다’는 파란색을 포함한 파란색 계열의 다양한 색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나무’, ‘산’, ‘들’과 같은 자연물은 하나의 색으로 고정되기보다 여러 색이 뒤섞여 나타나므로, 이를 모두 아울러 표현할 수 있는 ‘푸르다’가 더 자연스럽다. 또한, ‘푸르다’는 단순한 색 표현을 넘어 ‘생기, 희망, 맑음, 신선함’과 같은 비유적·상징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어 자연물의 특성과도 잘 어울린다. 그리고 ‘푸르다’가 ‘풀’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자들은 색채어가 발달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자연물을 ‘푸르다’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자연물에 ‘푸르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인 화자들이 파란색이 아닌 경우에도 ‘파랗다’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표준국어사전에 정의된 것처럼 ‘푸르다’와 ‘파랗다’는 맑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채어이다. 따라서 맑은 하늘을 ‘푸른색, 파란색’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색채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맑은 하늘은 연한 파란색으로 ‘파란색’보다는 ‘하늘색’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하늘색’은 ‘맑고 푸른 하늘의 색’에서 온 말로 맑은 하늘을 지칭하기 위해 다시 ‘푸른 하늘의 색’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신호등 색채 표현에 대해 살펴보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신호등’ 정의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하여, 적색(빨간색), 녹색(초록색), 황색(노란색) 및 녹색 화살표 표시 따위의 점멸로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우회·진행 등을 지시하는 장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청 2022년 『LED 교통신호등표준 지침 개정안』에도 신호등 색을 ‘적색(빨간색), 황색(노란색), 녹색(초록색)’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호등의 공식적인 색은 녹색(초록색)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신호등의 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양성희(2021)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신호등의

출발 신호 색에 대한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95%가 이를 ‘초록색’으로 인식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모국어 화자들 역시 신호등의 색을 ‘녹색(초록색)’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신호등의 공식적인 색이 녹색(초록색)이고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도 신호등의 색을 ‘초록색’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파란불’과 ‘초록불’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는 ‘청신호(靑信號)’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신호’와 함께 ‘파란불’과 ‘초록불’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반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초록불’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¹⁴⁾ 그러나 두 사전에 모두 ‘파란불’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불’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파란불’은 어디에서 온 표현일까?

표준어인 ‘청신호’의 ‘청(靑)’은 한자어로, 사전에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이 밝고 선명한 푸른색’으로 정의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푸른색’은 ‘파란색, 녹색, 하늘색’ 등을 통칭하는 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이 색들이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다가 이후 색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파란색 계열의 색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청색’을 ‘파란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¹⁵⁾ 신호등의 출발 신호인 ‘청신호’는 일상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파란불’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성희(2021:356)에서 제시한 것처럼 ‘빨간불’에 대응되는 색깔로 ‘파란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색’은 ‘푸른불’로도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불’이 아닌 ‘파란불’로 표현하는 것은 ‘빨간불’에 상반되는 색으로 더 강하게 인식되도록

14) 양성희(2021:347)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출발 신호등의 맞는 표현으로 ‘청신호’, ‘파란불’만이 등재되어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2025년 6월 현재 ‘초록불’도 함께 등재되어 있다.

15) 구분관(2008:271)에서도 ‘푸르다’는 ‘녹색’에 더 가깝고 ‘파랗다’는 ‘청색’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색 분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국제 규격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호등의 출발 신호가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초록불’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신호등을 ‘청신호’, ‘파란불’, ‘초록불’로 혼용하여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언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란불’이라는 표현은 화자들이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청신호’, ‘파란불’이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불’로 확장되어 사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파란색’ 계열 색채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푸르다’와 ‘파랗다’는 모두 파란색을 나타내지만 두 색채어의 의미와 사용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파란색이 아닌 경우에도 ‘파랗다’로 지칭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어 수업 시간에 활용할다면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푸르다’와 ‘파랗다’의 색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2. 이탈리아어 ‘파란색’ 계열

이탈리아어 ‘파란색’ 계열의 대표적인 색채어는 ‘blu(파란색), azzurro(밝은 파란색/하늘색), celeste(연한 하늘색)’로 이들은 서로 독립된 색을 가지고 있다.(Giacalone Ramat, 1967:198-200)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탈리아어 색채어의 가장 큰 특징은 ‘azzurro(하늘색)’가 기본 색채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blu(파란색)’와 ‘azzurro(하늘색)’는 기본 색채어로 보는 반면, ‘celeste(연한 하늘색)’는 그렇지 않다. 먼저 ‘blu(파란색), azzurro(하늘색), celeste(연한 하늘색)’가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¹⁶⁾

16) 본 연구에서 참고한 사전은 ‘treccani’로, ‘treccani’는 과학, 문학, 예술 분야 전문 이탈리아어 백과사전으로 세계에서 권위있는 백과사전 중 하나이다.

(6) ‘blu’의 사전적 정의

- ㄱ. 형용사. 짙은 하늘색 또는 짙은 감청색(turchino)
- ㄴ. 일상적인 용법에서 ‘azzurro(밝은 파란색/하늘색)’와 구분됨:
 - ‘azzurro’는 낮의 맑은 하늘색
 - ‘blu’ 또는 ‘turchino’는 맑고 청명한 밤하늘의 색으로 쓰임
 - 비유적으로는 ‘sangue blu((귀족의 피)’ 또는 ‘sangue azzurro’
 - auto blu → 고위직 공무원용 차량
- ㄷ. 명사로도 자주 쓰임(단순한 색을 가리킬 때 사용)
- ㄹ. 비유적이고 구어적인 표현:
 - avere(o prendersi) una paura blu / una fifa blu(몹시 놀라다)

(7) ‘azzurro’의 사전적 정의

- ㄱ. 형용사. 맑은 하늘의 색(‘celeste’와 ‘blu’의 중간색):
 - 바다의 하늘색 물결, 하늘색 눈동자
 - (농담조) 귀족 혈통
 - 잘생기고 용감한 왕자(백마탄 왕자)
 - 공군, 등푸른 생선 등
- ㄴ. 남성 명사. 하늘색(무지개 색 중 하나) :
 - l’azzurro del cielo, del mare(하늘, 바다의 푸른빛)
- ㄷ. 하늘색을 띤 화학물
- ㄹ. 특수 의미로 확장:
 - 공화군, 이탈리아 국가대표, 정당 지지자 등
- ㄷ. 명사. 청금석

(8) ‘celeste’의 사전적 정의

- ㄱ. 형용사. 하늘의(하늘에 속하거나 하늘을 움직이는 것), 맑게 갠 하늘과 비슷한 색(연한 하늘색)
- ㄴ. 하늘(즉, 신과 성인들의 처소)과 관련된 의미
- ㄷ. 매우 달콤하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거의 ‘하늘’에 어울릴 만한)

‘Treccani’ 백과사전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모두 사물의 색을 나타내는 색채어로 사용되며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색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가지 색채어를 모두 하늘의 색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는데 명도의 차이에 따라 가장 어두운 하늘색은 ‘blu(파란색)’, 중간색은 ‘azzurro(하늘색)’, 가장 밝은 하늘색은 ‘celeste(연한 하늘색)’로 정의하였다. 즉 세 가지 색채어가 모두 하늘의 색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만 각각 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9) ㄱ. Un cielo azzurro senza nuvole.(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ㄴ. Il cielo blu della notte era calmo.(밤의 푸른 하늘은 고요했다.)
 ㄷ. Il cielo era di un celeste chiarissimo dopo la pioggia.
 (비가 온 뒤 하늘은 아주 연한 하늘색이었다.)

(9)는 ‘blu’, ‘azzurro’, ‘celeste’가 하늘의 색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예로 (9ㄱ)은 ‘azzurro’가 사용된 경우로 이탈리아어에서 전형적인 맑고 푸른 하늘은 ‘azzurro’로 표현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9ㄴ)과 같이 어두운 밤하늘은 ‘blu’, (9ㄷ)과 같이 비 온 뒤나 봄의 아주 맑은 하늘은 ‘celeste’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일상생활보다는 문학 작품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Paggetti et al.(2016:15-16)에 따르면 ‘blu’는 17세기 프랑스어 ‘bleu’에서 차용된 것으로 북이탈리아에 대량 수입된 ‘인디고 염료(indigo)’로 생산된 진한 파랑이 귀족 복식의 상징이 되면서 ‘blu’가 단어로 자리 자리잡았다고 한다. 반면 ‘azzurro’는 프랑스어 ‘azur’에서 유래되었는데 14세기경 ‘단테’의 시에 이미 등장했고 ‘사보이 왕가(House of Savoy)’의 문장에서 귀족적 상징색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다고 한다. 따라서 기원적으로 볼 때 ‘azzurro’가 ‘blu’보다 더 일찍 고유한 영역을 가진 색채어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란색’ 계열 색채어에서 한국어는 ‘푸른색(푸르다) - 파란색(파랗다) - 하늘색’ 순으로 발달한 반면 이탈리아어는 ‘azzurro - blu’ 순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맑은 하늘을 지칭하는 두 언어의 색채어가 다른 것은 두 언어의 색채어 발달 순서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0) ㄱ. Abbiamo navigato nel mare blu tutto il giorno.
(우리는 하루 종일 푸른 바다를 항해했다.)
- ㄴ. Il mare era di un verde brillante sotto il sole.
(바다는 태양 아래에서 밝은 초록색이었다.)
- ㄷ. Il lago sembrava grigio sotto le nuvole.
(호수는 구름 아래에서 회색으로 보였다.)
- ㄹ. Il lago era di un azzurro intenso.
(호수는 짙은 하늘색이었다.)
- ㅁ. I campi erano di un verde acceso dopo la pioggia.
(비가 온 뒤 들판은 선명한 초록색이었다.)
- ㅂ. Il bosco era immerso in una luce verde smeraldo.
(숲은 에메랄드 초록빛에 잠겨 있었다.)

자연의 색을 나타내는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자. (10ㄱ)과 (10ㄴ)은 ‘바다’의 색을 표현한 예로 이탈리아어에서 ‘바다’의 색은 일반적으로 ‘blu’로 지칭되지만, 상황에 따라 ‘azzurro’나 ‘verde(녹색)’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호수’의 색은 ‘바다’처럼 정해진 고유한 색이 없고 빛, 깊이 등에 따라 (10ㄷ), (10ㄹ)처럼 ‘grigio(회색)’, ‘azzurro’, ‘verde’ 등 다양한 색채어로 표현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들판, 나무, 숲’ 등과 같은 자연물을 묘사할 때 형용사 ‘푸르다’만 사용하는 반면 이탈리아어에서는 (10ㅁ), (10ㅂ)과 같이 일반적으로 ‘verde’를 사용한다.

Mari Uusküla(2014)는 이탈리아어 모국어 화자들이 ‘blu’, ‘azzurro’, ‘celeste’를 어떻게 인식하고 구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인 185명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이탈리아어 모국어 화자들은 ‘blu’, ‘azzurro’, ‘celeste’를 서로 구분된 파란색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어 연상 실험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blu’는 어두운 것(97%), ‘blu penna 파란펜(92%)’, ‘blu sangue 파란피(89%)’ 등과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고, ‘azzurro’는 ‘왕자(100%), 하늘(76%), 눈(70%)’, ‘celeste’는 ‘천국(78%), 티셔츠(73%), 밝은 것(70%)’과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세 색채어의 사전적 정의와 용법에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어의 신호등처럼, 이탈리아어에서도 ‘파란색’과 ‘초록색’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어에서는 신호등의 색을 ‘semaforo rosso(빨간불)’, ‘semaforo giallo(노란불)’, ‘semaforo verde(초록불)’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며, 한국어처럼 출발 신호를 ‘파란불’과 ‘초록불’로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¹⁷⁾

이상으로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란색’ 계열의 색채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 ‘파란색’ 계열 색채어에서는 ‘푸르다’의 용법과 의미가 특징적이라면 이탈리아어 색채어에서는 ‘azzurro’의 의미 용법이 두드러진다. 한국어에서는 ‘하늘색’이 기본 색채어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탈리아어에서는 ‘azzurro’가 색채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파랗다’는 이탈리아어의 ‘blu’에 대응되는 반면, ‘푸르다’는 ‘azzurro, blu, celeste, verde’ 등 다양한 색채어에 대응된다. 이러한 현상은 색채어 발달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점을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학습자들이 겪는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이탈리아어는 모두 색채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 색의 미세한 차이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본 색채어와 색채어 발달 순서와 용법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17) 이탈리아 도로교통법(Codice della Strada) 제41조에서는 신호등의 색상을 ‘semafororosso(빨간불)’, ‘semaforo giallo(노란불)’, ‘semaforo verde(초록불)’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언어의 ‘파란색’ 계열 기본 색채어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에서는 ‘푸르다’와 ‘파랗다’가 기본 색채어인 반면, 이탈리아어에서는 ‘blu’와 ‘azzurro’가 기본 색채어이다. 한국어의 ‘파랗다’는 이탈리아어의 ‘blu’에 대응되지만, ‘푸르다’는 ‘azzurro, blu, celeste, verde’ 등 여러 색채어에 대응된다. 따라서 이탈리아어에는 ‘푸르다’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색채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인해 이탈리아어 모국어 화자들은 ‘푸르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두 언어의 기본 색채어 발달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 전통적인 기본 색채어인 ‘푸르다’에서 ‘파랗다’가 파생되었고 이후에 ‘파란색’ 계열의 색채어가 세분화 되면서 ‘하늘색’도 독립된 색채어로 자리 잡았다. 반면 이탈리아어의 경우 14세기 경에 ‘azzurro’가 먼저 사용되었고 17세기에 ‘blu’가 프랑스어에서 차용되었다.

셋째, 두 언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 맑은 하늘과 바다, 호수를 표현할 때 색채어 ‘푸르다’와 ‘파랗다’가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파랗다’가 자연스럽게 문학적인 표현에서 ‘푸르다’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들, 산, 숲’ 등과 같은 자연물을 표현할 때는 ‘푸르다’가 사용된다. 반면 이탈리아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늘’을 표현할 때는 ‘azzurro’, 바다는 ‘blu’, ‘들, 산, 숲’과 같은 자연물을 표현할 때는 ‘verde’를 사용한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란색’ 계열의 색채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색채어 대조를 통해서 두 언어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예슬(2020),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색채 관용 표현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ang, Y. S.(2020),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of Color Terms for English Learner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구본관(2008), 한국어 색채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2, 형태론, 261-285쪽. Koo, B. K.(2008), Hangukeo saekchaepyohyeone daehan injjeoneohakjeok gochal(A Cognitive Linguistic Analysis of Color Expressions in Korean), *Morphology 10-2*, pp. 261-285.
- 김선민(2014), 프랑스어 색채 형용사 “bleu”, “vert”와 한국어 등가어들 간의 비교, 불어불문학연구 100, 한국불어불문학회, 753-781쪽. Kim, S. M.(2014), Peurangseue saekchae hyeongyongsa ‘bleu’ ‘vert’wa hangugeo deunggaodeul ganui bigyo(Comparison between French Color Adjectives ‘bleu’ and ‘vert’ and Korean Equivalents), *Bureobulmunhak Yeongu(Journal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100*, pp. 753-781.
- 김영우(1998), 파생 색채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성,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75-105쪽. Kim, Y. W.(1998), Morpholog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erived Color Terms, *The Journal of Linguistics Science 15*, pp. 75-105.
- 성인출(1997),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31, 한민족어문학회, 35-53쪽. Seong, I. C.(1997), Saekchaeoui eowongwa eumunronjeok gochal(A Study on the Etymology and Phonological Aspects of Color Terms), *Hanminjok Emunhak(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1*, pp. 35-53.
- 양성희(2021), 교통신호등 파란불과 초록불의 혼용-‘푸르다’의 색채 변화 범주를 중심으로, 국어학 97, 국어학회, 341-372쪽. Yang, S. H.(2021), The mixed use of traffic lights Blue and Green-Focused on the change of color category of ‘puleuda’-,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97*, pp. 341-372.
- 이건환(2007), 한국어 색채어 명명과 체험적 근거, 국어교육 40, 국어교육학회, 235-252쪽. Lee, K. H.(2007), On the Experiential Ground & Naming of Korean Color Language,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40*, pp. 235-252.
- 이현희(2011),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 한글 291, 한글학회, 193-228쪽. Lee, H. H.(2011), The Aspects of Korean Color Expressions and Their

- Classifications, *Hangeul* 291, pp. 193-228.
- 정하윤(2021), 한국어 기본색채어 지도 방안-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hong, H. Y.(2021), A Proposal to Teach Basic Korean Color Term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조문환(2013), 이탈리아어의 색채어 표현 연구, 이탈리아어문학 39, 275-304쪽. Cho, M. H.(2013), Italliaeoui saekchaeo pyohyeon yeongu(A Study on Color Term Expressions in Italian), *Itallia eumunhak(Italian Language and Literature)* 39, pp. 275-304.
- 홍선희(1982), 우리 말의 색채어 낱말발-현재 사용되고 있는 색채어를 중심으로, 한성언어문학 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21-136쪽. Hong, S. H.(1982), Uri male saekchaeo natmalbat - hyeonjae sayongdoego itneun saekchaeoreul jungsimeuro(The Lexical Field of Color Terms in the Korean Language: Focusing on Currently Used Expressions), *Journal of Hansung Language and Literature* 1, pp. 121-136.
- Berlin, B. & Kay, P.(1969), *Basic Color Term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l Viva, M. M., Castellotti, S. & Paramei, G. V.(2023), The Italian colour lexicon in Tuscany: elicited lists, cognitive salience, and semantic maps of colour term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0-1, pp. 1-17.
- Grossmann, M. & D'Achille, P.(2019), *Compound color terms in Italia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MARI UUSKÜLA(2014), Linguistic categorization of BLUE in Standard Italian, *Colour studi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67-78.
- Paggetti, G., Menegaz, G. & Paramei, G. V.(2015), Color naming in Italian language, *Color Research & Application* 41-4, pp. 402-415.
- Paramei, G. V., D'Orsi, M. & Menegaz, G.(2016), Cross-linguistic similarity affects L2 cognate representation: blu vs. blue in Italian-English bilinguals,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olour Association* 16, pp. 69-81.
- Philip, G.(2006), Connotative Meaning in English and Italian Colour-Word Metaphors, *Metaphorik.de* 10, pp. 59-93.
- 경찰청(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5),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개정판 (22.4.27),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20428170632102\(2025.07.15.\)](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20428170632102(2025.07.15.))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KU RIKS),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2025.06.20.\)](https://ko.dict.naver.com/#/main(2025.06.20.))
- 국가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색채표준정보,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83>(2025.06.30.)

국립국어원(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2025.06.30.)

이탈리아 교통부(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https://www.mit.gov.it/documentazione/codice-della-strada>(2025.07.10.)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s://www.riss.kr/index.do>(2025.07.15.)
Treccani, <https://www.treccani.it/vocabolario/blu/>(2025.06.30.)

이 상 숙

베네치아 카포스카리 대학교 아시아 및 지중해 아프리카학과 조교수

Dorsodura 3246, 30123 Venezia, Italy

전화번호: +39 041 234 9590

전자우편: sangsuk.lee@unive.it

투고일: 2025. 8. 3.

심사일: 2025. 8. 30.

게재 확정: 2025. 9. 8.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어 연구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중심으로-

이상숙(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이탈리아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탈리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파란색’ 계열 색채어의 의미적 범주와 사용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는 색채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로, 접두사와 접미사의 결합, 색채어의 합성, 자음·모음의 교체 등을 통해 미세한 색의 차이는 물론 색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의 차이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 또한 한국어 못지않게 정교한 색채어 체계를 갖춘 언어이며, 미적 감각이 중시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색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이 특히 ‘파란색’ 계열 색채어 사용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언어의 ‘파란색’ 계열 색채어를 살펴봄으로써 이탈리아인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파란색’ 계열 기본 색채어의 차이, ‘파란색’ 계열 기본 색채어의 발달 순서, 색채어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색채어(Color Term), 기본 색채어(Basic Color Terms), 파란색 계열(Blue Series), 한국어(Korean Language), 이탈리아어(Italian Language), 한국어 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